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1년 9월 3일(금) 총 6매	
담당 부서 스마트도시담당관	담 당 자	• ICT인프라팀장 박영규 ☎440-8931 • 담당자 신은선 ☎440-893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 훼손 도주자, 인천에선 실시간 추적해 잡는다**

- 법무부·경찰청·소방본부와 1만6천여 대 CCTV 영상 실시간 공유해 추적 -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365일 안전안심도시 인천” 조성 -

최근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추적을 통해 신속한 검거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해 시 전 지역의 1만6천여 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무부(위치추적관제센터), 경찰청, 소방본부와 실시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1만6천여 대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은 광역시 가운데는 최다 규모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안전,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해 지능화된 스마트도시와 365일 안전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 6억 원외에 공유대상 CCTV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10억 5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의 예산 지원으로 10개 군·구가 ‘스마트도시 안전망’ 가입을 마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인천시 전 지역의 CCTV를 경찰·소방·법무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강력범죄를 비롯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CCTV 영상을 경찰·소방·법무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즉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출동시간 단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할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훼손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합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서 전자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인천시가 제공하는 인근 CCTV영상을 통해 대상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나 화재발생 시에도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현장 출동요원에게 상황 발생지점의 CCTV영상을 실시간 제공해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경찰청 수배차량 검색 지원, ▲전통시장 화재시스템 연계, 안심버스 정류장 시범 설치, ▲인천시 안심in앱(스마트폰 안심귀가 앱)을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인천시는 9월 말 법무부, 경찰청, 소방본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인천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원·신도심 간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여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똑똑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 참고 > 1. 인천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추진 개요  
2. 서비스 이미지 및 CCTV 영상 공유 참고화면

# 인천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추진 개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2. ~ 2021. 9.
- (사업범위) 시, 법무부, 군·구, 경찰, 소방 시스템 연계
- (사업예산) 1,650백만 원(국비 600, 시비 600, 재난관리기금 450)
  - 사업구축비 1,200백만 원(국비600, 시비600),
  - 스마트도시 안전망 라이선스 구입(재난관리기금) 450백만원
- (사업내용)
  - ICT기반의 방법, 교통, 환경 등의 시스템을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도시 전반에 대한 실시간 감시·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구축

※ (연계서비스) ▲법무부·112·119 현장 영상 지원, ▲수배차량 검색 지원, ▲재난상황 대응 지원, ▲전통시장 화재경보시스템 연계(시범), ▲버스정류장 긴급상황정보 연계(시범), ▲안심in 연동

##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공모 선정 : '20. 2.
- 인천형 뉴딜 10대 과제 2위 선정 : '20. 10.
- 법무부·경찰·소방 CCTV 연계서비스 테스트 개시 : '21. 8. ~ 9.
- 관계기관(법무부·인천경찰청) 업무 협약 체결 : '21. 9. 30.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 이미지 >



## < 유관기관 CCTV 영상 공유 화면 >

